

교육인적자원부 출범과 대학 교육의 방향

구 관 서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I.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

미래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21세기는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중시되는 지식 기반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간의 경쟁 양상도 자본과 노동의 투입 경쟁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국가 혁신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 각국들은 이미 지속적인 교육 개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및 고용을 연계한 국가 차원의 인적 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인적 자원 개발의 현주소를 보면 인적 자원 개발 업무가 28개 부처·청에 산재되어 중복과 낭비가 심하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 교육과정과 청소년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자격·노동시장 정책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박사 실업, 여성·노인·중도 탈락자 등 취약 계층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 체제가 미비하다. 다시 말해 인적 자

원 개발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여 고비용과 저효율 구조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1. 1. 29.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적 인적 자원 개발 체제를 구축하는데 국가의 총 역량을 집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바탕으로 교육 개혁의 지평을 확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적 자원 개발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재조명하여 추진 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된 법령, 제도, 재정 등 인프라를 정비·확충하여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뀐 이유는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을 연계 조정하여 일과 학습, 생활이 통합된 평생 학습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생 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의 제반 노력들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해야만 개인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개인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조직도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생

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체제, 평생 학습 체제를 구축하려는 교육 개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Ⅱ. 지식 정보 기반 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

산업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생산성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지식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자원이 된다. 지식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국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지식·정보 사회로의 조속한 이행 여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급속히 발전하는 지식은 국가의 경쟁력과 부를 창출하는 근원적인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식의 창조와 확산이라는 사명을 가진 대학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는 지식 정보화 사회 변화의 동력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대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 경쟁력 제고의 핵심은 대학 교육을 얼마나 내실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내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이제 결정적이라고 할만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뒤처지지 않는 창의적 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 맞추어져 있는 교육 체제와 관행을 과감히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즉 대학들이 현재에 안주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유용한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최고의 지식과 첨단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중추 기관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시대를 지키고 이끌어 가는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사

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창의력을 가진 공익적 인간을 양성하는 일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대학의 기능과 연계하여 살펴보자. 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이 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특성화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학생 주도의 학습으로 수업 방법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교육과 더불어 연구를 생명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어떤 한 대학이 모든 분야의 연구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별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은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즉,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 학습 센터가 되어야 한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특히 성인 학생에 대한 대학의 평생 학습 기회 제공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Ⅲ. 우리 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점

우리 나라 대학 교육은 지난 50년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2001년 현재 인구 1만 명당 고등교육 인구가 657명으로, 미국의 543명, 일본의 314명, 영국의 310명, 독일의 264명을 능가하여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과학 논문 인용 색인(SCI) 게재 논문 수가 서울대학이 '99년 기준으로 78위에 불과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등에서도 선진국 대학보다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과학 논문 인용 색인(SCI) 기준으로 세계 16위로서, 무역 규모 11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제개발원(IMD)의 2000년 보고서에서 우리 고등교육 수준을 평가 대상 47개국 중 43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 대학교육이 질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세계 수준과 많은 격차가 있다고 본다.

우리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한국 사회 전반이 안고 있는 문제점 만큼이나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본다. 우리 대학은 특성화·다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사한 종합대학 모형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에너지와 힘을 결집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적 위기가 선진국과의 '지식 격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대학들이 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대학들의 연구 역량 또한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보다는 사회적 명성에 기초해서 서열이 매겨져 있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 대학들은 단지 지방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대학들은 경직된 행·재정 구조와 타성으로 활력을 띄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사립대학에서는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학교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들은 지역 사회나 산업체와 적절한 동반자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교수 사회에 경쟁과 활력이 부족하고 연구를 하지 않는 교수도 정년까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학연에 따른 부당한 교수 임용 관행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 시험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 제도와 관행으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여 왔다. 교육과 연구의 비중에도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문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조속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국 대학들이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지식 정보 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Ⅳ. 새로운 시대의 대학 교육 방향

1. 대학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

우리 대학이 지식 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백화점식·나열식의 학교 경영을 지양하고 지식 기반 사회에 부합하는 특색 있고 다양화된 고등교육의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별 대학의 여건에 적합한 분야를 특성화하여 대학간의 서열화를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대학이 나타나야 한다.

대학별로 연구·개발 인력(R&D) 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산업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선택하여 각 대학이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도록 해야 한다. 선진 외국 유명 대학의 벤치마킹과 교류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시각을 갖춘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즉 국내 대학끼리의 경쟁에서 벗어나 외국 대학과 겨루어야 한다. 또한, 지방 대학의 교육·연구 수요 증대를 위해 권역별로 전략산업 및 지역 문화·전통 등의 특성과 연계하여 비교 우위 분야를 특성화하여 나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즉, 대학별 건학 이념과 여건에 따른 대학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하여 대학별 특성화와 자생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권역별로 대학간 연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

대학의 생존과 도태 여부는

우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유무에 달려 있다.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운영에 있어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학 자체의 인적·물적 지원 체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

유도해 나가야 한다.

2. 대학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 향상

어느 조직이든 경직된 체제하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러한 조직은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대학에 요구하여 대학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질적으로 대학 자율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학내 의사 결정 기구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다양한 능력의 개발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요구된다. 즉, 개성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들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 입학 전형 방법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2002학년도 입학 제도를 일관되게 현장에 착근시켜 나가자 한다. 대학들이 특기와 적성에 따른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의 생존과 도태 여부는 우수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 유무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의 건물·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보다는 교육 내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혁이 더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운영에 있어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학 자체의 인적·물적 지원 체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부는 사회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대학들이 자유로운 전공 선택 방식, 다양한 전공의 유형, 기초 학문 강조 등에 중점을 두어 폭넓은 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The whole man)을 육성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부는 사학의 공공적 성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발전을 제한하는 규제적인 법령 조항을 과감히 철폐하여 독립적인 사학 운영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이에 상응하는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사학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대학 경영 혁신 및 재구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적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적 추세는 학습자의 지적 능력 향상을 최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수월성은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등식과 함께 대학 개혁의 핵심적 논리 역시 대학 교육의 수월성 제고에 두고 있다. 이러한 수월성은 교과 과정의 운영, 교수의 업적, 학생의 성취 수준, 체제상의 효율적 측면에서의 재구조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립대학의 설치·운영 목적에 상응하는 고등교육·연구 기관으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사립대학의 역할과 구분되는 공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대학간 학과 교환 등 구조 조정은 물론, 대학 내부의 운영 시스템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자 한다. 국립대학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립대학 발전 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 중 대학별 자체 발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국립대학 구조 조정 평가 사업을 통해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평가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즉 지금까지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따라오는 대학에 대하여 지원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대학이 스스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대학별 창의적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4. 연구와 공부하는 대학 풍토 조성

대학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감축할 계획이다.

능력과 업적에 따른 구성원간 합의에 의한 교수 임용 풍토 조성을 위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계획이다. 공정한 신규 채용과 재임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료화 해 나가고자 한다. 겸임 교수, 초빙 교수 등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유형의 교수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교원 인사의 개방화·다양화 촉진과 경쟁 체제 강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실시 예정인 교수 계약 임용제도 대학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공정한 운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 개선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개별 대학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세부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튼튼한 과학과 기술의 기반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초 학문의 토대 위에서 응용과학과 기술이 발전 가능하도록 기초과학·인문학 등 기초 학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 학문 육성 계획을 금년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학술지 등재, 학술지 평가 사업, 학술회관 건립, 학술 자료 DB 구축 등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학사 관리를 통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모든 분야에서 유리하도록 제도과 풍토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맞추어 대학 스스로도 성적 평가나 학사 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강의 평가제나 전공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졸업 제도 등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평생 학습 사회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 영역 확장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지식의 효용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산업체

근로자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시간제 등록이나 학점 은행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넘어 평생교육 체제에 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 등 다양한 교수 학습 체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스탠포드 대학과 실리콘 밸리, MIT와 보스턴 벨리 등 미국에서도 대학이 기술 개발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이 지역 발전의 지식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이 최신의 지식 도입과 응용 등으로 산업계 및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연구 기획 단계부터 산업계·학계·연구계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 연구 개발 과제 선정시 이러한 협동 연구 과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 행사 마련,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양, 문화 프로그램 제공, 학교 시설의 개방 등을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6. 대학 교육 세계화

21세기 대학 교육은 세계화의 큰 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이 초국적(transactional education) 특성을 띄게 되고, 세계화의 흐름은 학습 이동(learning mobility)과 국경 없는 대학 교육(borderless education)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대학 개혁에 있어서 세계화의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 학습에 사용되는 학습 언어나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계화의 여부는 대학 개혁의 핵심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나의 지구촌 질서

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세계화에 대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학간 인적·물적 교류가 적극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고 정보화 능력과 외국어 능력이 졸업 필수 요건이 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대학은 이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WTO의 전문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육제도의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V. 결론

대학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학 구성원들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 내는 기관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 교육의 발전은 대학 구성원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열정과 노력이 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런 토대 위에 기업, 사회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들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

구관서

서울대 사범대학 및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연세대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을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대학을 수료하였으며, 홍익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부산수산대 교무과장, 교육부 교원양성과장, 기획예산 담당관, 충무과장 및 감사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으로 재직 중이다.